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6월 26일(금) (율력 윤 5월 6일) Пятница 26 июня 2020г. № 25(11689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6월 2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예식 기자 촬영)

6월 24일, 승전 75주년 기념

6월 24일에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 등지에서 제75주년 대조국전쟁 승리 기념행사가 열렸다.

주요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승리)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이었다. 행사에는 900명 이상의 인원과 육군 32대대, 군사 특수 장비들이 참가했다. 열병식은 10시에 시작되어 승리광장에는 장교, 하사관, 군부대 장병, 사관학교 학생들, '유나르미야(청소년 군대)' 활동 회원, 군 관계 대표자들을 배치하여 진행했다. 러시아 국기는 나이마노브 투슬란 중위가, 승리의 깃발은 이 유리 중위가 들고 행진했다.

이날 알레리 리모렌코 주지사와 드미트리 글루셴코브 제 68군단 사령관의 축사가 있었다.

열병식에서는 '우탈'차량을 기반으로 한 다연발 로켓 시스템이 장착된 '스메치', '우라간'과 전투차량 '그라드'가 행진했다. 처음으로 체계화된 종대에는 '티그르'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최신 무선통신 시스템도 있었고 '카투사'소련의 전설적인 종대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프의 정기 노선인 '오틀란' 철도버스의 승객들은 특별 콘서트를 관람하게 되었다. 아침에 차량에서 '슈체트' 보컬 그룹의 솔리스트가 공연을 하고 전쟁시절의 시를 낭독하며 노래를 불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오전 9시 7분에, 코르사코프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오전 10시 39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돌아오는 노선은 11시 57분에 공연이 이뤄졌다. 저녁에는 추모와 영광의 해를 기리며 대학생들이 '함께 노래합시다' 행사를 펼쳤다. 공연은 '오틀란' 철도버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발 18:30분, 코르사코프 발 19:59분에 볼 수 있었다. 대조국 전쟁 승전 75주년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전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쉬코탄과 쿠나쉬르에서는 오전 11시에 기념비에 화환 헌화식이 있었고 12시에는 지역 음악 예술 단체들의 공연과 육상 경기가 펼쳐졌다.

사할린주, 현 코로나19 감염 급격히 확산

최근 사할린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주 초에는 하루에 20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주 말부터는 하루에 36-38명이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코르사코프 병원 접촉자, 사할린 주병원 지역혈관센터 접촉자가 많았고 급성호흡바이러스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했다.

23일(화) 오후 주정부 실무 회의에서 현재 사할린주에서 코로나19 감염 무증상자는 198 명이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최근에는 무증상자들은 집에서 전적인 격리 속에 치료를 진행한다.

주내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657입원 병상이 마련되었고 이들은 돌린스크중앙구역병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병원, 철도병원, 피부·성병 진료소, 코르사코프 중앙구역병원, 사할린주클리닉병원과 세웨로-쿠릴스크 중앙구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주부터 외부 지역으로부터 사할린주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두 번의 코로나19 검진 결과가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5일만 격리되고 14일간 의료적 관찰을 받으며, 출근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의무적으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6월 24일 현재 사할린주에는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654명, 이 중 163명이 완치되었고 491명이 치료를 받는 중이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악화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단신

러시아연방 헌법개정 사전 투표 시작

7월 1일(수)은 러시아연방 헌법 개정 투표일로 휴무일이다.

6월 25일부터 사할린주 전역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다. 사할린 주민들은 등록된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임 사할린 세관국장 임명

안드레이 벨라예브(1972년생)가 사할린 세관 총책임직에 임명되었다. 이 기관의 홍보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그는 6월 22일(월)에 부임했다. 새 지도자는 아직 직원들과 만남을 갖지 못했다. 현재 그는 사할린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의무격리 상태에 있다.

안드레이 벨라예브는 2018년 10월부터 사할린에 발령된 전까지 남부 세관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부시장으로

안드레이 코왈추크 임명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부시장으로 안드레이 코왈추크가 임명되었다. 그는 통합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된 세부 행정활동, 재정 부문 감독 및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시급한 기획 추진도 감독한다.

안드레이 코왈추크는 1970년생으로 '산업적, 서민적 건축'을 대학에서 전공했다.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그는 <고르야르히첵투라(도시 건축)>지방자치공공기업 사장이었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6월 27일, 러시아의 '청년의 날' 맞아

개인사업과 사회봉사로 활동하는 청년 김 아르쭘

예의 바르고 미남형의 김 아르쭘 씨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정기회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서 자주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중순에 크라스노고르스크·사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을 찾아갈 때 김 아르쭘을 알게 되었다. 부친의 성함은 김중선, 1988년생인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고 2006년에 장학생으로 사할린 국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정보학 교사를 전공했다.

2011년 대학 졸업 당시 사할린주에는 지금처럼 아직 젊은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없었고 취직도 어려웠고 재정적인 면도 생각해야 했다. 첫 7년간 그는 여행사에서 항공권 예매 직원으로 근무했다. 처음에는 <사할린 교통지점>유한회사에서, 다음 5년은 <베들레헨>회사에서 근무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라고 아르쭘은 말한다.

개인사업을 하려는 마음으로 방콕기기(장비)를 사할린으로 운송하여 도매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1월 말에는 또 한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것은 "SandLand(샌드랜드)"스튜디오를 열어 모래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경향의 사업이 마음에 든

다며 사범교육을 받은 것과 소비자들과의 접촉하는 경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아르쭘 씨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모래 애니메이션은 가장 일반적인 자료로 놀라운 걸작을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이고 상상력을 가지고 몇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튜디오에는 3세부터 16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있고, 가족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생일, 결혼식, 회식 등을 주제로 하는 모래그림으로 동영상도 만든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일반 격리에 들어가기 전, 3월 중순까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쉬었다가 요즘에서야 이 사업을 재개하는 중이다.

3남매(2남, 1녀)중 막내인 그의 가족사로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인 2세인 부모님은 이미 정년퇴직을 했다. 부모님은 아직 자녀들에게는 기둥 같은 존재이고, 자녀들을 많이 뒷받침 해주시는 편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아르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은 가족과 친지들이다. 그는 자유시간을 이들과 보내고 여행을 좋아한다고 한



다. 사할린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도 좋아한다고 했다. 그에게는 내년 결혼을 앞둔 애인이 있어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청년회에서 활동은 2018년부터 시작했다. 청년회에는 이 세르게이 회장이 권하여 회원이 되었고, 되도록 청년회의 모든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에 주 한인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세트 전달과 건강관리프로그램(프라우다 마을과 체호브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월 27일 러시아 청년의 날을 맞아 그의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공정한 성품을 지닌 이 청년이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순신 기자)

수신: 한국 국회 전해철 의원 등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감사와 청원의 글

지난 4월 29일은 사할린동포 역사에 매우 중요한 획을 그은 날입니다. 우리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애써온 우리 동포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도움을 준 많은 대한민국 기관과 단체, 역사적 결의를 해 준 20대 국회에는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광복 이후 모국으로의 귀환만 꿈꾸어 왔던 우리 사할린 한인들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반쪽 짜리 귀환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할린 특별법의 통과는 영주귀국의 대상을 직계비속 1명까지 확대한 것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그 외에 국적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특별법 논의과정(공청회 등)에 사할린 동포 대표는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특별법의 통과는 '사할린동포'를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우리 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명예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놓였다고 믿습니다.

이에 3만 여 사할린동포를 대표하는 우리 '사할린 한인협회'는 어렵게 제정된 동 특별법의 시행령에 우리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아래 몇 가지 청을 전달합니다.

첫째, 동 법의 영주귀국 당사자가 되는 제2조 제1항의 '사할린 동포'를 현재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동반가족'의 범위를 1항의 당사자와 반드시 '동반'하는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2조 제1항의 대상을 생존자로 한정한다면, 현재 사할린 잔류 1세 약 530명과 기 영주귀국자 중 생존자 2,700여 명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법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귀환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면, 영주귀국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찍 사망한 1세대 영주귀국은 했으나 모국에서 사망한 1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그들의 직계자손이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초에 세대가 아닌 날짜(1945.8.15.)를 기준으로 영주귀국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같은 부모를 둔 형제도 생년에 따라 영주귀국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자인 미영주귀국자나 기영주귀국자의 직계비속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수혜자에게는 중복 혜택을, 비수혜자에게는 중복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전 극동지역의 아름다움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6월 11일 유튜브 채널 'VRCM SPACE'에서 모바일 콘텐츠 <아름답다. 극동지역> 첫 온라인 동영상 축제가 개최되어 극동지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기 지역의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명한 미디어계 거장들의 활동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축제 우승자에게 지급될 총상금이 100만 루블리란 점에서 이 기획에 참가할 만하다. 신청서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축제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으로서 소박한 자신의 고향을 보여주어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이다. 공모작은 자기의 지역에 애항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고향의 자연을 영상으로 담아 동영상으로 편집해 그 특징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축제의 특징은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원격으로 참가자를 선정하고 작품을 인터넷 인기투표에 부쳐 우승을 가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 투표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며 민주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량으로는 부랴티야 공화국과 캄차트카 변경이 앞서고 있다.

주최 측은 강하게 동기를 부여한 총상금액을 발표했다. 우승자들에게 수여된 상금은 총 1백만 루블리로 5개 부문 우수 작품들은 각 10만 루블리, 심사위원 선정 특별상은 20만 루블리, 시청자 선정의 <그랑프리(대상)>는 30만 루블리를 시상한다.

투표는 7월과 8월 기간 11개 지역에서 각각 5개 부문 -<극동의 자연>, <극동의 사람들>, <극동의 소리>, <극동의 힘>, <극동은 독특하다>-등에서

이뤄진다. 참가자에 대한 요건과 세부 사항은 tvoidv.ru. 포털 사이트의 특별 항목에 게시돼 있다.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онлайн посмотреть на красоты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1 июня на YouTube-канал VRCM SPACE запустили первый онлайн-видеофестиваль мобильного контента «Красиво.ДВ», где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красо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рассказать об уникальности своего регио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признанных медийных гуру и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в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 веские причины,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0 июля.

Главная цель фестиваля — подтолкнуть жителей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прекрас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казать свою малую родину. Всех влюбленных в свой край призывают запечатлеть природу родных мест и рассказать о людях, их характере в формате видеороликов.

Особенностью фестиваля является дистанционный отбор участников и народное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сех этапах проведения. Важно, что выбрать лучшие работы смогут сами люди —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йдет в интернете и будет народны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 количеству заявок лидирует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и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ъявили очень мотивирующий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Один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будет распределен между победителями. Авторы лучших работ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получают п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ладатель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иза жюри —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зрительского «Гран-при» —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йдет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в каждом из 11 регионов по пяти номинациям — «Природа.ДВ», «Люди.ДВ», «Звуки.ДВ», «Сила.ДВ», «Уникально.ДВ». Все подробности, условия, требовани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размещены в специальном разделе портала tvoidv.ru.

사할린을 떠나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제공

연방 규정에 따르면, 지역 내 환자, 접촉자 및 입

도객에 대한 무료 테스트가 규정되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왈레리 리마렌코의 지시에 따라 이런 범주의 시민 명단이 확대되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도착지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의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출발하기 전에 검사가 가능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검체 검사는 상담 및 진료 센터에서 이뤄진다. 이곳에 환자들이 다른 요인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마련했다.

검사는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간 대기순으로 진단 절차가 진행된다. 검사는 상기도와 하기도의 검체를 채취하여 분석해 3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의 지역 중앙 병원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Сахалинцы, выезжающие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бесплатно могут сдать анализы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Согласно федеральным нормативам, бесплат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ля заболевших, контактных и прибывших в регио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еречень таки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расширили. Анализ могут сдат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еред поездкой, если по месту прибытия требуется документ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тесте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рганизовано на базе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Здесь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о помещение для этих целей, чтобы пациенты не пересекалис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обращаются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 другим поводам.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ческую процедуру можно в будние дни, с 9:00 до 12:00, в порядке живой очереди. У пациентов берут мазки из носо- и ротоглотки. Готовность анализов — в течение трех суток.

Для жителей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аналогич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в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8면에 계속)

출판물 소개

나콜라이 위쉬넵스키 역사학자, 마카로브의 한인들에 대한 책 출판

지난 19일(금)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약 10명이 모인 가운데 나콜라이 위쉬넵스키 사할린 역사학자가 마카로브 지역 한인들에 대한 책을 소개했다. 이 행사를 개최한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책 출판기념회를 맞아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 한국·일본·러시아의 외교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려던 계획을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간단회로 축소해 열었다. 이날 간단회에는 위쉬넵스키 저자가 자료 수집, 책 편집과 출판에 협조한 분들을 초대했다. 그 중에는 마카로브 구역 출신의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타치아나 아렌토와 부관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권건자 한국어 강사, 사할린 주두마 안톤 크루글리크 의원의 보좌관 보리스 오소킨과 책 디자이너인 나탈리아 쉬마코와 등이 참석했다.



책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위쉬넵스키 저자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초대 한 분들에게 책을 나누어주었다.

책 제목의 번역은 <그러운 아침의 나라의 북쪽>이다. 현재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 중인데 저자에 따르면 나중에 한글판 제목을 바꿀 계획이라고 한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시의 출신인 나콜라이 위쉬넵스키는 사할린주 군사역사(전쟁)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제작년부터 그는 마카로브 구역의 역사를 반영한 책을 3권으로 집필하고 있다. 두 권은 이미 출판되었고 남은 한 권도 곧 소개할 계획이다. 이 기획은 마카로브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마카로브 역사를 조명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에 대한 자료가 꽤 많아졌다. 그때 한인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출판하려는 의도에 지방정부도 바로 공감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의 출신의 한인들은 1925년에 주로 마카로브로 이주해갔다는 자료를 발견했을 때 그는 더더욱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마카로브 한인연구에 불을 붙인 분들은 마카로브 향토박물관 관장이며 마카로브 한인회 회장인 고영순 씨와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박순옥 회장이었다. 위쉬넵스키 연구가는 이들의 뒷받침과 도움이 컸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러시아 사할린주 마카로브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삶과 역사에 대해 기술되었다.

저자의 따르면 책의 집필 의도는 현재 마카로브 지역 내에서 발전한 한인 공동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형성과 정체성의 조직화와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민족 지역인 사할린에서 지역 개발과 발전에 있어 한인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 분야에서의 그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 출판물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기록물 보관소 및 개인 소장 자료, 마카로브 거주자들의 증언 등 과거 출판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 및 사진들이 대거 수록되었다.

위쉬넵스키 저자는 특히 일본 홋카이도 요제 시립도서관과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라후토 시대의 희귀 출판물과 자료들이 이번 책 집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하고 많은 자료들을 인용하여 반영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의 자료들은 네 가지 출처를 기반으로 했다고 한다. 1) 아카이브 자료, 2) 소련 및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 3) 저자의 현장 연구기록, 4) 러시아 및 일본의 언론 자료이다. 위쉬넵스키 연구가는 이 책에 제공된 자료들은 마카로브 한인 역사의 실재를 재조명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에 의해 퇴색된 이야기들은 한인들의 각 가정사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안드레이 크라스콥스키 마카로브 시장이 쓴 책의 추천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사할린주 마카로브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 중에서도 한인은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들은 20세기 초반부터 이 땅에서 살았으며, 한인 공동체 형성의 역사는 매우 독특하고 여러 면에서 비극적이었습니다. 사할린의 역사학자이자, <마카로브 땅>의 저자인 N.V. 위쉬넵스키는 이 책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합니다. 적어도 사할린주에서 지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한인들의 삶을 조명한 첫 번째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자는 한인들의 실제 운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깊게 살펴볼 수 있었고, 사할린 역사의 일반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희귀한 역사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마카로브에 살았던 한인들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인용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가족 앨범에서 가져온 수많은 사진들은 이 책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카로브 향토박물관의 출판물로 500권이 발행된 가운데 이미 이 저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한다. 마카로브 한인들에 대한 한글판 저서는 연말까지(빠르면 8월 말까지) 300권을 출판할 계획이다.

저자는 자료 수집 및 유용한 충고와 제언을 아끼지 않은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선임 연구원 진 율리아 박사, 마카로브 시 기록 보관소 G.A. 토카레바 소장, 사할린 주립 도서관 T.N. 아렌토바 부관장, 사할린주 역사기록보관소 A.N. 김 연구원, 마카로브시 향토 박물관 고영순 관장, 사할린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그리고 야마가타 대학의 아마노 나오키 부교수, 홋카이도 대학의 스키진 박사과정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간단회를 찾아온 사람 모두가 좋은 책을 펴낸 나콜라이 위쉬넵스키 연구가를 축하했으며 박순옥 주 한인협회 회장은 단체 명의로 민족 기념품을 선사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현충 및 애도의 날 기념



6월 22일 현충 및 애도의 날, 약 100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추념의 촛불' 국제 행사에 참여했다. 새벽 4시 영광의 기념광장 영원한 불꽃 앞에서 지방정부 의원,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주정부 대표들, '알렉산드르 넵스키 형제단', 사회 활동가, 대학생 및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조국전쟁으로 전몰한 2700만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에 불을 붙였다. 참가자 중에는 주한인협회 회장과 청년회 회원들이 있었다.

79년 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시작된 새벽 4시, 시각을 알리는 초침소리가 나고 화면으로 타오르는 촛불의 모습이 펼쳐졌다. 타오르는 불꽃 앞에 '기억합니다.'라는 단어에 촛불이 점화됐다.

오후에는 연례 행사로서 영원의 불꽃에 헌화하는 예식이 열렸다. 1945년 남사할린과 쿠릴의 해방을 위한 전쟁에서 전사한 소비에트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로 병사들의 희생을 추념하기 위해 참전용사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군 관계자들, 주내 지방 및 지역 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교회, 정치계, 사회 단체, 예술계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문과 묵념을 올렸다. 이 행사는 사할린 전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대조국 전쟁 앞에 사할린은 어땠나?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지구상에서 과거 한 때 모든 전쟁 중에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날짜에 대한 기억은 과거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날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75년 전 성취된 업적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참전용사들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날이다.

전쟁 초기에 사할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40년 대조국 전쟁이 시작되기 전 북사할린에는 11만 7천명이 거주했고 남사할린에는 약 40만명이 거주했다. 이 중 일본인은 36만명, 한국인은 2만3천명, 러시아인은 360명이었다.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처럼 사할린 주민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1941년 6월22일 독일의 파시스트의 배신적인 공격으로 그 평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붉은 군대에 징집되기 시작했다.

1940년에 석유산업 종사자들 1/3은 스타하노브 운동가나 대장장이들이었다.이 해에 이들에 의한 석유 생산량은 50만 톤에 달했다.

대조국 전쟁 첫날부터 석유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력은 석유 생산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더해 사할린의 광부들도 대단히 집요한 노동으로 1941년에 68만7천 톤의 석탄을 채취했다. 남자들이 군대로 징집되는 바람에 산림에 벌목공의 수는 감소했다.

전쟁 당시 사할린에는 20개 수산물 공장과 생선16만2천1백 킬로그램을 염장하는 5개 기지, 2개 조선소, 원목 운반 공장, 제재 공장, 선박 수리업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마다 생선 어획량은 증가했다.
1941년 주에서는 지역 원자재 생산과 폭넓은 소비품목 생산 확대에 따른 행사 계획도 작성되었다.

가구 생산과 목재 향아리 제작,목재 공업공장이 건설되었다.

군의 주문 제작으로 기업들에서는 가죽 산업, 말 안장 제작,신발,펠트장화, 밍크 모자, 병어리 장갑의 생산업이 증가했다. 1940년 사할린에는 20개 집단농업농장이 있었는데 이 중 3개가 사슴 농장이고 7개의 국영집단농장이 있었다. 농장의 면적은 4,900헥타르에 달했고 콜호즈(집단 농업농장)와 슈호즈(국영 집단농장)에는 93대의 트랙터와 8대의 콤팩트 수확기, 14대의 트랙터 타작기 및 농장 기구 일체가 있었다. 전쟁 기간에는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이 조성돼 21개 병원에 643개의 병상이 갖추어져 있었고, 47개 외래 환자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진의 수는 147명이고, 간호사 등 중간 의료진은 373명이었다.

1940년 사할린주에는 86개 클럽과 103개의 상설 도서관이 있었으며 1400명이 교육을 받는 52개 유치원이 있었다.

(사할린 통계국 홍보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Продолжается проект «Здоровье» для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писало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начата совмес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мощи пожилым корейцам именно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н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иагностику и консультацию врачей, профилактику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раздачу риса. В этом году эту программу решено продолж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СК и волонтер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уже побывали в селах Правда и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а 27 июня отправятся в Холмск. Пожилые люди (Правда – 9 чел., Чехов – 8 чел.)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визито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ются также в Шахтерске и Смирных.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издал книгу о макаровских корейцах

19 июн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оялась небольшая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Северная частиц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 книге воссозданы малоизвестные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нигу представил автор –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Николай Вишневицкий.

В издании использованы уникальные, ранее не публиковавшиеся документы и фотографии из арх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частных коллекций, воспоминания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материалы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облагодарила автора за первую книгу о жизни районных корейцев.

Еще раз к вопросу о Спецзакоме п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в конце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Корею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по наполнению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актов для работы Закона. Законодатели хотят учесть также и м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аются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направило в адрес парламента свои замеч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по Закону (публикуется в настоящем номер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надеется, что они будут учтены. Вместе с тем, среди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мечается ажиотаж, связанный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выезда на ПМЖ. РООСК еще раз сообщает, что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ставлением списков и приемом документов никто не должен заниматься, право на это имеет только РООСК. Пока не приняты исполнительные акты, эта работа вестись не будет. Все комментарии будут только после принят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казов,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Наш корр.)

Цой – 2020

21 июня на видеохостинге YouTube стартовала премьер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сериала о легенде русского рока Викторе Цое. В этот день ему исполнилось бы 58 лет.

Интервью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К" с продюсером кинопроекта Алёной Егориной

Алёна, как и когда родилась идея создания фильма?

10 лет назад мы искали помещение для съёмок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Окно». Это социальная драма о детях,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неблагополучных семьях. Фильм внесен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фильм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Фильм тяжёлый и нам не просто было найти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который бы согласился помочь. Многие отказали, а вот Тамара Юрьевна из школы 238 СПб согласилась. С тех пор мы стали дружить. Тамара Юрьевна просто генератор идей, очень многое для детей делает. Очень многое! Мы стараем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её. Поддержали в создании детской киностудии.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было создание кинофестиваля для детей.

Сегодня это уже открытый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детского кино и видео творчества, куда присылают свои работы школьник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от Сибири до Краснодаря. Сформиров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жюри, куда входим и мы с Николаем.

Дети присылают самые разные работы и часто поднимают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темы. В 2018 го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победила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ная Виктору Цою. Я плакала, когда его смотрела. Тогда мы стали задумываться, почему уже третье поколение детей слушают и поют его песни.

В 2018 году решили снять фильм о петербургских местах Цоя, с рассказами о нем и его времени людей, знавших Виктора, в попытке понять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Важно, что фильм не для продажи, чтобы в нём не было лживых телевизионных шоу-интриг и псевдорасследований. Фильм должен быть настоящим и честным.

С режиссёром Николаем Рогожиным составили план с адресами и список интервью. Позвонила своему давнему другу Юрию Беишкину. Он был директором группы Виктора Цоя в 88-89 годах. Юрий познакомил нас с Василием Игнатьевым,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м музыкантом клуба-музея «Камчатка».

Также Васил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Цой: от поколения - к поколению». Он ищет и находит детей, которые поют песни Цоя.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нам на руку были. Фильм же о феномене Цоя. Так мы стали работать над кинопроектом. Съёмки начались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Планировали сделать полнометражный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с элементам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ъёмки и концерт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Появилось рабочее название фильма – «Цой - 2018».

По плану хотели закончить к концу 2018 года. Но чем больше мы встречались с людьми, тем больше узнавали о каких-то фактах из жизни Виктора Робертовича, о которых раньше никто не знал.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оект должен быть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й. Мало взять 10 интервью, получается неполная картина. И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ельзя. Так в конце 2018 года переименовали проект из «Цой -2018» в «Цой - 2020». Стало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будет цикл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А какая цель проекта?

Рассказать о тех фактах из жизни Цоя и о тех местах, о которых ранее никто не рассказывал. 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смотреть, но и детям, всем,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творчеством Виктора Цоя. Мы пытаемся понять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В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е вас фактически трое?

Я, продюсер проекта, Николай, режиссер и Василий с нами. Но очень многие помогают, в том числе и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съёмок. Вот и Вас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и с отцом Виктора Робертом Максимовичем Цоем! И спасибо Вам за интервью, где Вы рассказали историю происхождения фамилии Цой. Это очень ценно для нас, создателей проекта, и для нашего зрителя.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же второй год собираете материал?

Съёмки начались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и до сих пор идут, уже 18 месяцев. Есть трейлер к проекту «ЦОЙ.2020» и тизер к одной из частей проекта «Чёрный День», э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 канале в Ютубе.

И Вас никто не финансирует?

Нет. Мы всё делаем своими силами. Наше преимущество – это наш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и связи в рок-среде Петербурга.

Не появлялось желание продать это на какой-нибудь телеканал? Ведь это уникальная работа.

Вот в этом то и дело. Проект уникальный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ним от чистого сердца. Нет цели заработать деньги. Мы честны и открыты. Люди, у которых берем интервью и которые нам помогают, это всё видят. Поэтому идут нам на встречу.

А что ещё хотите показать в проекте, чего нет в други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ах?

Важно понять, как Цой стал героем страны и вдохновил людей, чем он интересен нынешним детям.

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дали интервью?

Больше ста. Николай снимал даже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Париже и Копенгагене, где тоже выступал Цой. Были командировки в Латвию, на место гибели Виктора.

Расскажите, а кто конкретно уже дал интервью?

Всех не перечислить. Из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 Борис Гребенщиков, Рашид Нугманов, Константин Кинчев. Из неизвестных: учителя Виктора в школе, телохранитель в звездные годы... Некоторые интервью мы ждали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Люди занятые. Но наше терпение того стоило.

Как проходили интервью? Что в них?

Зрители увидят сами. Но сразу скажу, что интервью не пустые. Николай и Василий каждый раз тщательно готовились к ним. Они связаны между собой в одну цепочку.

Георгий Ким,

спецк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член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KOREAN HOMELAND EDUCATION (K-HED)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боре участников на лекции летнего семестра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2020 г.

Период набора: 17.06.2020 г. (Ср) ~ 30.06.2020 г. (Вт)
Для ког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бор:

- Заявители весенне-летнего курса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рейцев 2020 (в 1-ю очередь)
- Лица, уже завершившие курс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рейцев (во 2-ю очередь)
- Корейцы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желающие пройти летне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старше 15 лет (в 3-ю очередь)

Период обучения (по выбору):

Июль | 06.07.2020 г. (Пн) ~ 31.07.2020 г. (Пт)
Август | 03.08.2020 г. (Пн) ~ 28.08.2020 г. (Пт)

Содержание обучения: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I.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через истории).
- Культура Кореи I. Информация о курс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еды, традиционная и совре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и.
- История Кореи I.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в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и т.д.
- Обучение всемирных граждан I.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граждане, живущие вместе.

- Опыт и обучение на месте I.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первые в Корею? Тур по Корею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и т.д.
- Поступл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 I.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жизнь,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старшими студентами и т.д.

Привилегии:

Привилегия 1. Бесплатные лекции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и пол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а о завершении курса при соответствии критериям завершения.

Привилегия 2. В случае лиц, получивших сертификаты о завершении курса, приоритетный отбор в каче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ипендиатов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курс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Исключая лиц, уже получающих или получивших привилегии и льготы.

Привилегия 3. В случае лиц, прошедших курс в июле или август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определенных продуктов.

Привилегия 4.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оценки 1:1 и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поступлению в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реи.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имя (им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 Дату рождения / Страну проживания / E-MAIL/ курс, в котором вы желает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ыбор между июлем и августом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и отправьте в вид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исьма по адресу hansaram@kongju.ac.kr, либо отправьте напрямую сообщение через аккаунт в Инстаграме / Фейсбуке.

• Оконч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отбора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либо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веб-сайте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джу.

• Для отбора участников могут быть запрош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Контакты для справки: hansaram@kongju.ac.kr / +82-41-850-6031

Веб-сайт и SNS: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http://www.niied.go.kr>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джу <http://hansaram.or.kr>

Инстаграм http://instagram.com/khed_khed1

Фейсбук <http://facebook.com/knuhansaram>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арламентарии РК обсуждают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о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в вузах

Парламентарии РК обсуждают план снижения о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в вузах.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Хэ Чха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требование студентов о возвращении хотя бы части о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учитывая ухудшение качества занятий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Он,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зна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дготовки разумных мер, с которыми будут согласны и руководство вузов и учащиеся. 16 июн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дал указание подробно изучить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17 июн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при участии членов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В целом депутаты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о снижении бремени студентов на обучение. Для этого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план увелич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вузов, что позволит им уменьшить размер о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При этом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выразили мнение, что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щении части уже внесенной студентами оплаты должен решаться руководством вузов.

На российском судне, стоящем в порту Пусана, выявлены 16 случаев COVID-19

На судне-рефрижераторе под российским флагом и с экипажем, состоящим из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которое прибыло 20 июня в порт Пусана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выявлены 16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У остальных пяти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отриц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тестов. Инфицированные изолированы на судне и проходят лечени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 россиянами могли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около 160 южнокорейцев-работников порта,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приеме и разгрузке судна. Все они помещены в карантин. Из этих 160 человек 34 тесно общались с россиянами, занимая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разгрузкой. Как выяснили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за неделю до прибытия судна в Пусан у предыдущего капитана судна были признаки COVID-19. Он не пошел в рейс и сдал тест, который да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очага инфекции в городе, ситуация в котором до сих пор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благоприятной, вызывает повышенное беспокойство карантинных органов.

Конгресс США принял резолюцию к 70-летию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ала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нгресса США приня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резолю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70-й годовщине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созд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льянса. Ее предложили демократ Ами Бера и республиканец Тед Йохо. Бера являет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одкомитета пала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в странах Азии и 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а Йохо - член данного подкомитета. В резолюц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за 70 лет, прошедших с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союз США и Кореи превратился во всеобъемлющее глобаль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РК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опор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Ш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этому в интересах США сохранить свое передо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резолюции. (RKI)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43-31-31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Полная победа над COVID-19 невозможна

Полная побед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ом COVID-19, скорее всего, невозможна. К такому заключению стали приходить эксперты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похоже, отчаялись победить коронавирус у себя в стра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знали,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в стране идет вторая волна COVID-19, но она пока лишь слабое подобие того, что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А вот настоящего "второго пришеств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теперь ждут осенью-зимой, когда все может быть гораздо хуже.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те цифры,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утром на традиционном брифинге озвуч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здрава РК по ситуации с COVID-19, то им должно "позавидовать"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мира. В Корею за сутки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лишь 17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и никто не умер.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лучаев инфицирования за все время теперь составляет 12 438 человек при 10 881 (или более 87 процентов) выздоровевших. Летальность - 2,36 процента. Все как бы подтверждает уже сформировавшийся в мире образ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практически победила COVID-19.

В том-то и дело, что "почти" или "практически", но не полностью победила и не может победить. Эта незавершенность и беспокоит тех, кто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следит за ситуаци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тя цифры новых заболевших невелики, но с мая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возросло и стабильно превышает количество выздоравливающих.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усилия властей и медиков, в самых разных местах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и новые кластеры заражения. Вот уже почти месяц подряд в стране численность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носителей COVID-19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Очень медленно, но растет. При этом налицо новая тенденция - пациенты дольше болеют.

В итоге и выходит, что оконча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которую так надеялись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ровозгласить не удастся. Вирус постоянно умудряется как-то ускользнуть, напоминая пожар на торфяном болоте: потушишь в одном месте, как начинает загораться в совершенном другом.

Вся система находится в напряж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а вернуться полностью к обыч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и не получается. Вирус то здесь, то там себя проявляет. Это становится уже очень большим и заметным бременем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и психики людей, которые устали от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всю ситуацию, корейские медики пришли в итоге к выводу, что в стране уже идет вторая волн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ик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пришелся на конец февраля - середину марта. Она почти закончилась к концу апреля, а затем, когда ослабили меры п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ю и прочие ограничения, то пошла вторая волна коронавируса. Именно об эт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Центра по контролю за заболеваниями РК Чон Ын Гён.

Правда, тут сразу же надо подчеркнуть одну важную деталь: эта вторая волна - отнюдь не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е повторение предыдущего сценария, а лишь очень сильно приглушенная "рябь" от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волны COVID-19, которую не удастся превратить в полный "штиль". Сейчас в день в среднем заболевают 30-50 человек,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меньше ситуации февраля-марта, когда счет шел на сотни.

Чон Ын Гён именно это и отметила, сказав, что все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повторением круп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когда под угрозу ста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раны справиться с ней". Она добавила, что такие волны,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ут повторяться и в будущем.

Чон Ын Гён пояснила, что после ослабления мер п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ю люди стали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чаще, потому вирус и проявляется снова и снова. Сейчас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возникает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гд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но очаги стали возникать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не оправдались надежды, что летняя жара приведет к спаду COVID-19. В Корею днем уже стабильно за 30 градусов и ярко светит солнце, но вирус не уходит. "Нам стоит готовиться к тому, что осенью и зимой этого года коронавирус вернется уже в гораздо более крупных масштабах, чем он присутствует сейчас, во время повторной волны", - отметила Чон Ын Гён.

При этом и она и ее подчиненные затем повторили, пожалуй, куда более важную фразу, чем слова о второй волне в Корею, которые до этого растиражировали разные СМИ.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готовиться к длительном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с COVID-19", - заявила Чон.

Эти слова затем пояснили эксперты, которые отказались называть свои имена, ссылаясь на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и и отсутствия права общаться лично с прессой. "Похоже, что нам придется жить в атмосфере новых правил и законов, когда будет уделяться куда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дезинфекции - маскам, санитайзерам,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ю и прочему.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адоедает, но куда не деться.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наша новая реальность, с которой нам придется теперь всегда жить... Пока не появится эффективная вакцина, то нам придется жить с вирусом, как мы живем с простудой.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но куда деваться. Кто-то заболевает, кто-то от него заражается, потом выздоравливают, и снова по кругу до бесконечности. А полная победа над COVID-19,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отложена 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а возможно, что и вообще можно будет об этом и не мечтать. Возможно, что нам придется привыкнуть к COVID-19, как мы привыкли к сильному гриппу", - отметили два 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а.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это мнение не стали опровергать, уклончиво согласившись, что "дело приобрело долгосрочный характер и прорыв трудно ожидать до появления полноценной и эффективной вакцины". Ну или ждать, когда все переболеют, получив иммунитет. А просто только мытьем рук, ношением масок и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м не спасешься, хотя и можно огранич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ак только люди начинают чаще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так вирус появляется снова - таков вывод корейских медиков.

В Корею продолжают активно бороться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тремясь пресечь все возможные пути его проникнов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е стало выявляться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въезжают в Корею. При этом у граждан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 показатель выявления вируса особенно высок. В этой связи власти РК начали ужесточать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уже коснулось граждан Пакистана и Бангладеш, где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й процент выявленны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список стран, попавших под ограничения, власти Коре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аметно расширят.

Кроме того, обеспокоенны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редупредил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вращения к более жестким ограничениям.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мэра Сеула, если в город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подряд будет фиксироваться 30 и более случаев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либо если больницы для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будут заполнены на 70 и более процентов, то в мегаполисе будут введены меры п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ю, которые действовали в период главной вспышки инфекции и которые отменили в начале мая.

Мир, похоже, вступил в новую реальность - с масками,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м и COVID-19,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и посерьезнее ОРВИ, но неизбеже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праздновали 75-лети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начал череду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аршей в честь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Главным праздничным событием 24 июня стал военный пара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лед за песней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 ставшей гимном защиты Родины, на площадь Победы вышла знаменная группа. Российский флаг доверили нести старшему лейтенанту Руслану Найманову. Знамя Победы – в руках у старшего лейтенанта Юрия Ли. Оба его прадеда были участникам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свобождали Украину, Белоруссию, Польшу и Венгрию.

С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к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обратилис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командир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Дмитрий Глушенков.

– Сегодня мы отдаем дань уважения героям и славам победителей. Наш народ разгромил сильнейшего врага. Очистил землю от фашизма. Иначе и быть не могло. Не в нашем характере отступать и сдаваться. Мы – народ-победитель! И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мнить об этом. Хранить правду о событиях военных лет. Оберегать целостность грани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наш долг перед погибшими. И, конечно, перед вами, дорогие ветераны! Вы – лучший пример жизнелюбия и стойкости духа, любви к своей Родине. Низкий вам поклон за мирное небо 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митрий Глушен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дата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обеды стала символической. В 1945 году именно 24 июня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к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победы СССР над фашизмом.

По площад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ствова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отострелковых, ракетно-зенитных, радиотехн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родов войск. Торжественным маршем прошли рота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женский батальо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ФСИН, МЧС,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воспитанники кадетской школы, юнармейцы.

Следом зрители увидели более 30 единиц боевой и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и – бронированные машины повышенной проходимости, ре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Ураган» и «Смерч», боевые машины «Град» на базе автомобиля «Урал». Впервые в состав механизированной колонны вошли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С-300 и новейший комплекс радиосвязи на базе броневедомителя «Тигр». Замкнула парадную колонну легендарная советская «Катюша» – оружие Победы, участница всех значимых боев.

Главными зрителями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стали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други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дети войны».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около 200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обеспечили масками и перчатками.

– Хотя в этот раз у нас и не получилось с размахом отметить 9 мая, мы все равно создали праздник для ветеранов в каждом дворе. Этими трогательными моментами прониклись не только наши ветераны, но и артисты, волонтеры 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Военный парад – это традиция. Мы рады, что он все же состоялся, и мы целых два раза в этом году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Победы,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Зинаида Гльговер.

Праздник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этот день отметил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К примеру, на Кунашире и Шикотане состоялось возложение гирлянд и венков к памятникам, а также концерт и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ая эстафета.

Пассажиры рейсов пригородного поезда «Орлан», который курсирует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Корсаковом, стали зрителями необычного концерта. Утром в вагонах солисты вок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южеты» исполняли песни и стихи военных лет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Парад победителей».

Наканун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другим всероссийским акциям: «Сад памяти», «Голубь мира», «Я рисую мело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 стен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появилась кленовая аллея. Также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выпустили в небо белых голубей и нарисова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рисунки на асфальт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епутаты, военные,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22 июня 1941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ю нашей страны вторглись войска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и. Началась война, которая продлилась 1418 дней и ночей, унесла жизни 27 миллионов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год 22 июня люди приходят с цветами к мемориалам и памятникам, посвященны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 События тех лет – это не просто строчки в учебнике истори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ойна до сих пор отзывается болью незаживших ран, разрушенных семей, оборванных судеб. Важно бережно сохранить и передать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правду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гитлеровцев и их пособников, о подвиге наших отцов и дедов,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решающий вклад в победу над фашизмом. Это нужно живым, чтобы извлечь уроки из прошлого и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вторения в будущем.

– Каждый год в памятные дни миллионы людей 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ыходят на улицы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ных, спасших мир от коричневой чумы,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Важно, что они делают это по зову сердца. Значит, правда о войне жива. Мы не забыли, какие безмерные тяготы выпали на долю военного поколения, какую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завоевали наши отцы и деды.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Акийс провёл литию в память о павших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После минуты молчания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В селе Побед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захоронили останки двух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22 июня, в день годовщины начал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с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земле предали прах двух бойцов, найденных участниками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С добровольц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79 лет назад началась страшная кровопролитная война, в которой погибли миллионы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т день мы вспоминаем всех, кто защищал нашу Родину.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захоронили двух солдат, которые освобождали остров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поисковики проводят больш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предать земле останки каждого бойца с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Когда мы 1 июля будем голосовать по поправкам в Конституцию, мы будем голосовать за светлую память, за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и за неотделим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же много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у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более 300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В каждом случае активисты стараются выясни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сведения о бойце. На счету учас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10 установленных имен.

– Сегодня мы предаем земле останки двух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йдены в течение осеннего и весеннего этапов «Вахты Памяти». У одного бойца фамилия Штин. Инициалы И.Е. Пока не уд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полностью его имя. Останки второго солдата нашли меньше месяца назад. Имя его уд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благодаря подписанной фляжке. Это Чернышев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917 года рождения из города Черемхово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Надеемся, что найдутся 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мы сможем им сообщить, где похоронен герой,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В этом году поисковики планируют расширить масштабы полевого сезона. К экспедиции в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присоединятся активист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прибудут на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молодежног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слета «ОстроVa 2020». Он пройдет с 30 августа по 4 сен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Сад памя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сто для высадки молодых кленов выбрали символическое –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у стен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21 июня, накануне Дня памяти и скорби,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ветераны войны и труженики ты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епутаты, участники молодежны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потерял 27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 год 75-летия Победы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и Фонд памяти полководцев

Победы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каждому из погибших живой памятник, высадив 27 миллионов деревье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Калининграда. «Сад памяти», по замыслу инициаторов, станет местом, где текущий день соприкасается с историей.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олонтер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труд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актеры, спортсмены, политики. «Сады памяти» появ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 странах СНГ.

– Клены, которые мы сегодня высаживаем, – символ памяти о людях, отдавших жизнь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ашей Родины,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Создание сада объединяет ветеранов и молодежь, укрепляет связь поколениями,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ить знания о доблести наших отцов и дедов. Уверен, здесь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будут гулять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реди этих деревьев каждый из нас сможет вспомнить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рассказать о ней детям.

Под звуки фронтовых песен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высадили молодые деревья. Каждый клен заботливо полили, укрепили с помощью колышков.

– «Сад памяти» – это очень трогательная акция, – сказала Антонина Мурая, участница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прикасаясь к тонкому стволу дерева. – У меня воевали отец, брат, сестра, сама я, несмотря на детский возраст, работала в колхозе. Хоть ноги плохо ходят, я не могла пропустить закладку сада. И теперь хочу дожить до то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деревья укрепятся, разрастутся и поклонятся им в память о павших.

«Сад памя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ложенный в год 75-летия Победы,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75 кленов.

Горожане выберут лучшие проекты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цепции нового облика 4, 7 и 8 микрорайонов города сегодня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андой архитекторов обсуд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Авторы проектов – опы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оссии, Нидерландов и Япони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два столичн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бюро «Остоженка» и UNK PROJECT, а такж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архитектурную компанию» (Хабаровск) и OFERTA (Владивосток). Операто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ает московское архитектурное бюро RTDA, которое принимало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обновления внешнего вида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ы.

Одни разработчики предлагают создание дворов без машин, с озеленением, прогулоч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и игровыми зонами. Другие – продвигают идею организации пешего променад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через микрорайоны. Но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всех вариантов – обновить ветхий и признанный сейсмически небезопасным жилой фонд, переселить жителей в новые дома, построенные в их же микрорайоне, и в целом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ую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с учетом соврем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 У каждого проекта должна появиться своя команда сторонников. Особое место в ней необходимо отдать молодежи – людям, от которых в дальнейшем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города и которые поэтому наиболе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улучшении его облика. Именно молодые люди будут продвига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и вовлекать новых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допускаются изменения на основе новых, интерес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С учетом всех поступивших от горожан инициатив архитекторы разработают окончательную верси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л, что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 приоритет в развит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 этом все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решаются с максимальным вовлечением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 Мы намерены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двух месяцев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ь обсуждение идей обновления города, в том числе и онлайн, с участием разработчиков. Результатом станет общегород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о том, какой проект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ен горожанам. Планируем приурочить его ко Дню города, – сообщ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помним, перед разработкой концепций в феврале 2020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бывали проектировщики архитектурных компаний, лично 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территориями микрорайонов. Также в городе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ось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 формате соучаствующег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на котором горожане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и наполнению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жилых микрорайонов.

Выставка проектов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стеклянном павильон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до 30 июня. Каждый житель города сможе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нцепциями и выбрать для себя наиболее оптимальную. С 21 июня запущен сайт <https://new-ys.ru/>, на котором представлена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разработанным проекта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 공모전

- 주 최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 행사내용 : SNS에 한국문화, 역사, 한-러 관계 등을 소개한 우수 콘텐츠 공모대회
- 접수부문 : 이미지(카드형 스토리)/동영상
- 참여대상 : 러시아 국민(한인동포 포함)
- 공모주제
- 1) **나만 아는 한국**
예시) 명소, 맛집, 놀이, 문화 등 대상에 관계없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본인만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 콘텐츠
- 2) **한-러 문화 비교**
예시) 대중문화(가요, 영화, 드라마, 미용 등), 의식주, 관혼상제, 자녀 교육 방식 등 대상에 관계없이 한국과 러시아의 특성을 비교하는 콘텐츠
- 3) **한-러 협력**
예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자료 또는 아이디어 콘텐츠
- 신청방법
- 1. 이미지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분량제한 없음)
- 2. 해시태그 추가 #대한민국_러시아_30주년 #Корея_Россия_30лет #Korea_Russia_30years
- 3. 신청서와 콘텐츠의 링크를 10월 30일 까지 사할린출장소(sakhalin@mofa.go.kr)로 제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감사와 청원의 글

(2면의 계속)
둘째, 제3조 제2항의 '피해구제'에 있어버린 국적선택권을 이제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잔류1세에게는 영주귀국 및 국내 주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적판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적회복 대상이 되는 2세에게도 외국인등록 및 국내 주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외공관에서 국적업무 및 관련 민원업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영주귀국 대상자는 이미 국적판정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찍 사망했다는 이유, 영주귀국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권리가 있던 동포들은 기본권인 국적선택권조차 포기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 사할린동포의 국적확인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159) 및 현재 개별적·산발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적회복 업무를 사할린동포 전체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강제징용 피해자로 인정되었어도 국적이 없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대한민국에 호적이 있어도 국적이 없어 기록될 수 없는 설움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제3조 제3항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이 전시성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잔류1세와 차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기를 바랍니다.
- 이 특별법이 사할린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역사기념관과 양로원(요양원) 건립, 그리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할린동포에 대한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사할린 한인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사할린 한인협회장 박순옥

КОНКУРС ФОТО И ВИДЕО КОНТЕНТА

в честь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 ✪ **ОРГАНИЗАТОР**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 ✪ **СОДЕРЖАНИЕ КОНКУРСА** :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контент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пр.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 **ФОРМА УЧАСТИЯ** : Пост / Видео-пост
- ✪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 Граждане РФ

✪ КОНКУРСНЫЕ ТЕМЫ :

- 1) Корея, которую знаю только я**
Пример: Рассказ о Корее из личного опыта, не известный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опулярном ресторане, игре, культуре и пр.
- 2) Сравнение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Пример: Сравне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РК и РФ в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е (поп-музыка, кинематограф, сериалы, индустрия красоты и пр.), укладе быта (одежда, жилье, пища), обрядах (достижение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свадьба, похороны, поминки),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и т.д.
- 3)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Мнение, либо идеи относительно областей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или взаимного влияния, который получен/может быть получен

✪ ПРИЗЫ:

Номинация	Приз	Примечание
1 место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500	по 1 чел.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для постов / видео-постов
2 место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350	
3 место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200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50	по 2 чел.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для постов / видео-постов

✪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КИ:

1. Опубликуйте в своих соц.сетях пост/видео-пост(объем не ограничен)
2. Поставьте следующие хештеги : #대한민국_러시아_30주년 #Корея_Россия_30лет #Korea_Russia_30year
3. Заполните анкету-заявку и отправьте ссылку до 30.10.2020г. на sakhalin@mofa.go.kr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 +7-4242-46-24-30)

✪ ПРИМЕЧАНИЕ

- ✓ При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полученных лайков или просмотров будут начисля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 ✓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работ не ограничено.
- ✓ Язык контента – русский или корейск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 2020년 여름학기 원격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0. 6. 18.(목) ~ 6. 30.(화)

모집대상 1 | 2020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기 신청자(1순위)
2 | ~2019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자(2순위)
3 | 원격교육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만15세 이상(3순위)

교육기간 7월과정 | 2020. 7. 6.(월) ~ 7. 31.(금)
8월과정 | 2020. 8. 3.(월) ~ 8. 28.(금)

교육내용 **한국어** | 재외동포 위한 한국어(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문화 | 한국음식 조리 과정 소개,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
한국사 | 한국사 속 한류 등
세계시민교육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체험현장학습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온라인 투어 등
대학진학 | 선배가 소개하는 대학 생활 등

혜택 **혜택1**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 및 이수기준 충족 시, 이수증 발급
혜택2 이수증 발급자의 경우, 1년 내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신청 시, 국가장학생 우선 선발
※기수혜자 제외

혜택3 7·8월 과정 이수자의 경우, 소정의 상품 제공

혜택4 1:1평가와 피드백 제공 및 한국 대학 진학 상담 제공

지원방법 「이름(영문이름)/ 생년월일/ 거주국/ E-MAIL/ 참가희망 강좌(7월, 8월 중 택일(복수선택 가능)),를 적어 hansaram@kongju.ac.kr로 이메일 제출 또는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 제출
※최종 선발 결과는 메일 및 공주대 홈페이지 게시 예정
※수학생 선발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문의처 hansaram@kongju.ac.kr / +82-41-850-6031

홈페이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국립공주대학교한민족교육문화원 <http://hansaram.or.kr>
페이스북 <http://facebook.com/knuhansaram>
인스타그램 @khd_khd1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연금 수급자, 사기범에게 130 만 루블리 송금

한 날 저녁,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내무국 당직부서에 62세(여)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녀를 속여 130만 루블리 이상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긴급 대책과 대화하는 가운데 며칠 전 한 남성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걸어 자신이 법무부 직원임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법이 나올 것 같이라며 법에 따르면 여성이 이전에 얻은 생체활성 보조제에 대한 물질적 배상을 한다고 알렸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한 후 신고를 한 이 여성 전화번호로 몇몇 사기꾼들과 협잡해 여성에게 전화하여 공범자들과 말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로 동의한 후 사기꾼들은 이를 위해 은행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마치 다음에 남은 지급액과 함께 수수료도 반환될 것처럼 말했다. 사기꾼을 믿고 피해자는 며칠에 걸쳐 해당 금액 이상을 사기꾼의 계좌로 이체했다. 돈이 입금되자 사기꾼과 공범자들은 피해자와 모든 연락을 끊었다.

이 사건은 형법 159조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이런 사기 행각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명수배 중이라고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 지국 홍보실이

전했다.

Пенсионер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ам 1,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чера вечером в дежурную часть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оссии по гор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62-летней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ы.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еизвестные люди путем обмана завладели ее денеж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размере более 1 миллиона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беседе с оперативниками женщина уточнила, чт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ей на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позвонил мужчина и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одного из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ведомств. Он сообщил гражданке, что, якобы, вышел новый закон, по которому ей положена материальная компенсация за ранее приобретенные биоактивные добавки. Чтобы потерпевшая поверила его словам, после его звонка на номер заявительницы позвонили еще несколько аферистов и подтвердили слова своего подельник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терпевшая согласилась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мошенники уточнили, что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заплатить комиссию за банковский перевод, якобы потом она будет возвращена вместе с остальными выплатами. Поверив мошенникам, пенсионерка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перевела на счет мошенников вышеуказанную сумму. Как только деньги поступили на счет, аферисты оборвали с гражданкой все связи.

По данному факту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статье 159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лица, причастные к данному деянию,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е прозу жизни, кажется, порой
Намного проще описать стихами,
И день холодный, пасмурный, сырой
На миг зальется не дождем... лучами.*

Тэхо Чан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м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автора слов многих песен о Сахалине, тонкого лирика и ценителя прекрасного – Тэхо Чана с юбилеем!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ваша песня «Далекая, но близкая Корея», посвященная родителям,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сердц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пасибо Вам за творчество и неустанный поиск. Здоровья и счастья!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고희(70세)를 맞으신 장태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수무강하시며 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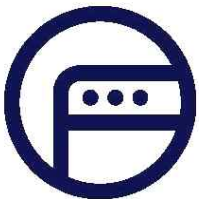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